BTN불교라디오 친근+유쾌함으로 '재단장'

'송봉주의 음악풍경' 등 3개 신규 프로그램 론칭

포크 밴드 '자탄풍' 송봉주 DJ나서
절대 입담 소유자 개그맨 차승환도
'원영 스님 해피타임'도 기대 고조
7월 3일부터 개편 방송 'START'

BTN불교라디오 '울림'이 더욱 친근하고 흥미로워진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청취자들에게 만족감을 선사할 예정이다. 더욱이 감성 포크 밴드 '자전거 탄 풍경'의 송봉주, 절대 입담의 소유자 개그맨 차승환 등이 새 프로그램의 DJ를 맡아 기대를 고조시키고 있다.

BTN불교라디오 '울림'은 3개 신규 프로그램을 7월 3일부터 방송한다.

먼저, 그룹 '자전거 탄 풍경'의 멤버 송봉주가 진행하는 '송봉주의 음악풍경'이 눈에 띈다. 송봉주 씨는 매일 아침 바쁜 출근 시간, 매력 넘치는 목소리와 신나는 음악으로 청취자들의 활기찬 아침을 열어줄 예정이다. 또한 보너스 코너 '센스 있는 생활정보'도 함께 진행된다. 매주 월~금 오전 8~9시 방영.

매일을 행복으로 가꿔가고 싶다면 '원영 스님의 해피타임'에 주목하자.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인 것들〉의 저자 원영 스님은 이번 방송을 통해 인생경험과 지식들을 가감 없이 드러낸다. 첫방송에 앞서 원영 스님은 "인생의 시간을 흘려버리지 말고 지금이라도 만나고, 사랑하고 시작하라. 그래야 행복할 수 있다"고 청취자들에게 당부한다. 매주 월~금 오전 10시 10분~11시 방영.

또한 MBC 공채 개그맨 차승환 씨의 '유쾌한쇼'는 이름부터 전해지는 유쾌함으로 벌써부터 청취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풍자와 콩트, 개그 토크 전문방송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울림' 제작진은 "차승환 씨가 가진 특유의 센스 넘치는 입담과 유쾌함으로 오전 시간대에 활기를 불어넣어줄 방송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매주 월~금 오전 11시~오후 12시 방영.

인기 프로그램인 '마음의 선율 혜민입니다'는 기존 오전 8시에서 10시로 방송 시간이 변경된다.

한편 BTN불교라디오 '울림'은 2015년 3월 1일 불교계 최초 '스마트 라디오'로 출발해 1년 후인 2016년 3월 1일 스마트폰 앱을 정식 출시했다. 울림 · 법문 · 불교음악 · 독경 총 4개 채널이 운영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울림 채널은 청취자들과 소통하며 실시간 참여를 이끄는 공감형 방송이다.

현재 BTN불교라디오 '울림'은 매월 2000~3000명, 총 6만 건의 앱 다운로드 수를 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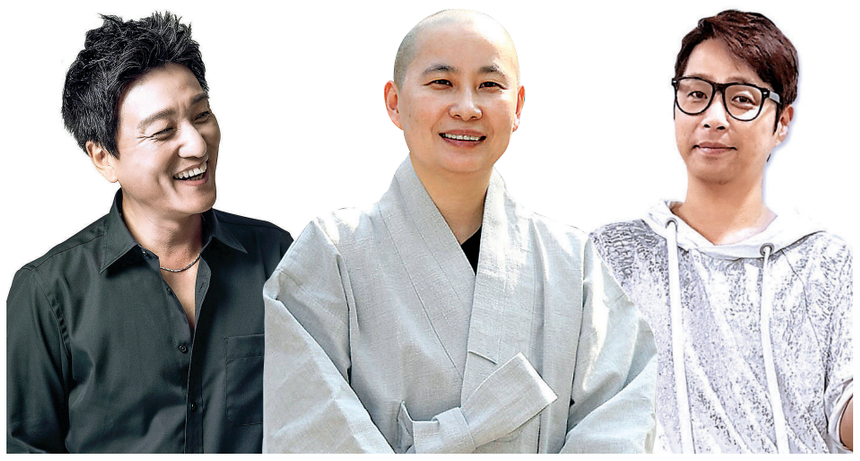
울림의 모든 프로그램은 전용앱을 통해 쉽고 빠른 청취가 가능하다. 울림 앱은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02)3270-3464~7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BTN불교라디오 '울림' 주요 프로그램

07:00-08:00	그대에게 이르는 길 운성입니다
08:00-09:00	송봉주의 음악풍경*
09:00-10:00	아름다운 세상 진명입니다
10:00-10:10	마음의 선율 혜민입니다
10:10-11:00	원영스님의 해피타임*
11:00-12:00	차승환의 유쾌한쇼*
12:00-13:00	본격스님토크쇼 야자수
13:00-14:00	김효선의 향기로운 만남

*는 신규 프로그램, 전 프로그램 월~금 방영



BTN불교라디오 '울림'이 7월 3일부터 3개 신규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사진은 새롭게 DJ로 나선 (왼쪽부터) 송봉주 · 원영 스님 · 차승환.

물과 먹으로만 '山'을 그려내다

김대열 작가, 한벽원갤러리 초대전



비상비공(非相非空), 179×96cm, 화선지에 수묵, 2017

수묵선화 작가로 잘 알려진 김대열 동국대 교수가 저서 〈수묵언어〉 외 3권 출판기념회 및 초대 개인전을 갖는다.

김대열 작가는 지난 30여 년간 수묵화로 산(山)에 대한 해석을 표현하는데 매진해 왔다. 쓱쓱 큰 붓질로 화면을 휘젓듯, 어떤 주저함이나 걸림이 없는 간결한 화법이 김 작가의 특징이다. 오로지 물과 먹만을 활용해 화면을 가득 채우는 점이 인상적이다.

특히 김대열의 작품은 불교의 선종(禪宗)을 모티브로 삼는 것으로 알려진다. 절대적인 불타(佛陀)에 귀의하는 것이 아닌 각자의 불성(佛性) 개발을 중시하는 선종의 성향에 따라 김 작가도 '정신의 본성을 통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작품세계를 펼친다.

김윤섭 미술평론가는 "김대열의 수묵작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소 중 '공기의 흔적'을 들 수 있다. 특정한 형상에 연연하지 않고, 그 형상이 잠시 머물렀던 그림자의 흔적을 드러낸다"면서 "그의 거침없고 대범한 붓질은 그 어떤 것이라도 단숨에 싸안을 수 있는 바람의 휘장(揮帳)과 같다"고 평했다.

〈수묵언어〉 외 3권 출판기념회 겸
30여점 출품… 7월 18일까지 열려

우러전미술문화재단 한벽원갤러리 초대로 진행되는 이번 개인전에서는 30여점의 작품이 출품된다. 아울러 30여년의 수묵작업을 정리한 〈수묵언어〉와 화문집 〈견산30년〉, 학술서 〈수묵화 출현과 선종〉 〈선종사상과 시각예술〉 총 4권의 저서 출판기념회를 함께 연다. 전시는 7월 12일부터 18일까지.

김대열(1952~) 작가는 동국대 예술대학 미술학부 한국화 전공을 졸업해 국립대만사범대학 대학원서 예술학 석사를 받았다. 또한 단국대 대학원 사학과에서 미술사를 전공해 문학박사 과정을 마쳤다. 지금까지 18차례의 개인전을 비롯해 300여 국내외 단체전에 참여했으며 〈선종의 공안과 수묵화출현에 관한 연구〉 등 3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동국대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이며, 중국 남개대학 객좌교수로 활동 중이다. (02)732-3777

박아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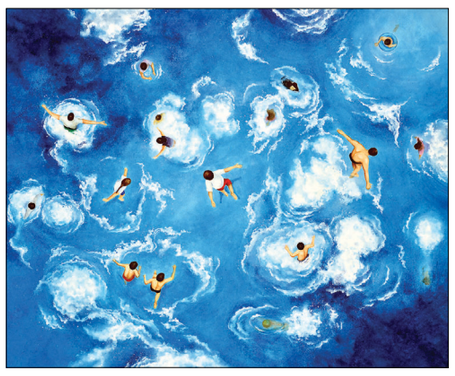
무형의 '물'에서 '자유'를 찾다

양세미 작가, 로터스갤러리 청년신인작가 기획전

2017 광주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청년신인작가 공모에 선정된 양세미 작가의 전시가 오늘(7월 3일)부터 7월 29일까지 열린다.

양세미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물'을 소재로 한 다양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물은 형태가 없는 무정형적 특성으로 많은 예술가들에게 창조적 영감을 제공하는 소재로 여겨져 왔다. 양 작가는 이처럼 다양한 의미를 함축한 '물'의 이미지에 특별한 매력을 느껴 매개로 활용, 현대 사회인들과 상관성을 그렸다고 밝혔다.

특히 작품 중 '수영장시리즈'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지친 현대인들에게 '물'을 통해 해방감과 자유로움을 선사하고 싶다는 양 작가의 관심에서 출발했다. 양 작가는 "물이 흐르다가 웅덩이에 갇히면 잠시 머무르는데, 쉬었다가는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바쁘게 살아가는 인간의 내면 속에서 갈망하는 자유의 모습을 물을 통해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양세미, 수영장시리즈, 130.3×162.2cm, 장지 위에 채색, 2017

양세미 작가는 전남대 예술대학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을 수료했다. 2013년 전라남도미술대전 특선 및 대한민국미술대상전 우수상, 2014년 한국화대전 우수상, 2015년 광주광역시미술대전 특선 등 수상한 바 있다.

개막행사는 6일 오후 6시 30분 열린다.

박아름 기자

'빠르고 정확한' 시각예술계에 '흐리고 느린' 미학을 던지다

법련사 불일미술관 신진작가 단체전

법련사(주지 진경) 불일미술관 2017 신진작가 공모전의 3번째 전시, '흐리고 느린'이 7월 11~24일 1 · 2관에서 열린다. 단체전으로 구성된 이번 전시에서 신진작가들은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한 한국화, 조각, 미디어 등의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흐리고 느린'은 빠르고 정확한 형태와 색감이 즐비한 한국시각예술계에서 조용하고 묵묵하게 자신의 감정에 주목하는 작가들의 작품을 모은 전시다. 신진작가들의 작품으로만 구성돼 더욱 기대를 모은다.

김선행 · 김은정 · 김지혜 · 박신유 · 윤대원 · 이동하 · 이민수 · 이유빈 · 이재희 · 이지민 작가가 참여하며, 기획은 기획평론가 김최은영 교수가 맡았다.

불일미술관은 "유행을 버린 이들이 선택한 시각예술의 구현은 기본적 조형의 기호와 규칙인 '색과 선' 뿐"이라면서 "이들이 표현하는 표상적 기호들은 미술계로 진입하기엔 다분히 흐리고 조금은 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단단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내보인다"고 설명했다.



참여작가 중 이지민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30×80×45cm 비단에 채색 2017

박아름 기자

참기 힘든 치아통증, 거친 피부
피부·치아 건강제
건강한 치아,
아름다운 피부를 원하십니까?
참기힘든 치아 통증, 치아건강 백세인생
거친피부, 노화촉진, 피부건강, 청춘인생
약사여래불 보살님의 기도, 가피, 지혜원력으로
건강하여지니 회향공덕하는 마음으로 불자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국내산 자연식용재료로 준비하였습니다
스님, 불자님, 충치,
풍치, 시린이 치주염,
아토피, 피부알레르기,
기미, 손발톱 무좀, 각질 등
치아피부가 건강치
못한 분들 연락주시면
3개월 사용분을
보시합니다.
문의 및 보시처
010-6332-6070
안산 법흥사 개운 합장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창고,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 · 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을 복원 해 놓은 책!!!
역사이래 가장 탁월한
한국의 민중의술
신간
제 1편 치병편
제2편 치료술
제3편 모든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법
제4편 수행편
지은이 최태규 | 펴낸곳 배문사 | 412쪽
범인(일반인)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정기)를 다 유실하므로 정신이 흐려져 결국 치매에 걸리거나 병들어 생을 힘들게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지각 있는 사람은 세월과 더불어 생명에너지를 모아가므로 날로 정신력이 강하여져 맑고 선명한 의식 상태, 앉은 채로 육신에서 영혼을 이탈 시킬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폼 나고 멋있게 죽을 수 있다. 이 의서는 임상실험을 통하여 가히 늙거나 병들지 않고 병이 들었더라도 저절로 낫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명확히 제시해 놓았다.
– 지은이의 말 중에서
가액 20,000원 (배송비 포함)
농협 715027-52-064797 (예금주 : 최태규)
구입 054)734-1767
민속죽염 www.msjy.co.kr
민중의술의 특징
① 애초에 병이 나지 않게 한다.
② 의료술이 정말 뛰어나고 완벽하게 낫게 한다. 또한 부작용이 일체 없다.
③ 너무 쉽고 간단 명료하다.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쉽게 터득할 수 있다.)
④ 돈이 거의 들지 않는다. (면역력을 극대화하므로 자연치유되도록 하여 치료약을 쓰지 않는다.)
⑤ 나이가 들어도 쉽게 늙지 않는다.